



어린이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기대가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미디어 중재와 지적 호기심의 이중 매개를 중심으로

정유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The Influence of Parents' Positive Attitudes and Expectations toward Children's Video Media Consumption on Children's Learning^{*,**}

The Dual Mediating Role of Parental Media Mediation and Epistemic Curiosity

Yoojin Chung^{*}**

(Post-doc Researcher, Communication and Media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Yun-jung Choi^{**}**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ildren's video media consumption on their learning comprehension. Children's media usage is primarily influenced by their par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arents' positive attitudes regarding their children's video media viewing, as well as parental mediation, which has been extensively explored. Specifically, the independent variable is parents' positive expectations that their children will learn something new and beneficial from watching video media.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three types of parental mediation strategies—explanatory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co-viewing—as the first mediating variables. These strategies describe distinct parenting practices that influence their children's media us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nsequences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either align or conflict. Children are exposed to previously unknown information through video media, which can vary in the degree of epistemic curiosity it stimulates. Epistemic curiosity is defined as the desire to enhance on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2095619].

** The study was presented at the 202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이 연구는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chungyoojin621@gamil.com, first author

**** yunchoi@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knowledge and solve cognitive problems by seeking new information. It consists of two dimensions: intellectual interest type (I-type) and 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D-type). Epistemic curiosity is a well-known predictor of learning comprehension. Both dimension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astery-oriented learning, which involves uncovering new intrinsic interests while also enjoying the learning process. However, only the 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of epistemic curiosity is known to significantly influence performance-approach learning that requires prolonged effort.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stimulating epistemic curiosity through watching video media will positively affect learning comprehension. It examines the three dimensions of parental mediation and the two dimensions of epistemic curiosity within the research model.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20 primary caregivers of children aged 6 to 8 years to test this hypothesis. The study used the Process Macro to analyze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intellectual interest type epistemic curiosity,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ly through the co-viewing mediation type. However, serial mediation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for any of the parental media mediation types. For 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epistemic curiosity, all three media mediation strategi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mediation effects on learning comprehension. However, the direction of the effects varied in serial mediation scenarios. Explanatory mediation and co-viewing demonstrated positive double mediation effects on learning comprehension through the 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of epistemic curiosity, whereas restrictive mediation showed a negative impact when double-mediated through 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epistemic curios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atching videos can help children develop their epistemic curiosity. It also emphasizes how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behaviors have a substantial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learning comprehens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ligning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fostering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learning outcomes through media consumption.

Keywords: Children's Media Use, Epistemic Curiosity, Parental Mediation, Learning Comprehens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이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 두 가지, 자녀가 미디어 시청으로 인해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 태도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하는 행동(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을 고려하였다. 지적호기심은 새로운 정보 탐색으로 지식수준 향상과 인지적 문제 해결을 하려는 욕구로 정의되고 흥미추구형과 정보갈망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어린이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며 지적호기심이 자극되어 학습이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를 위해 만 6~8세의 어린이 자녀를 둔 주양육자 부모 1,0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쇄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의 경우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는 공동시청 중재 차원에서만 자녀의 학습이해도

에 이중매개 효과를 보였다.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의 경우, 부모의 긍정적 태도는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은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이중매개해 학습이해도를 높였다. 그러나 제한적 중재의 경우 같은 경로를 통해 학습이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지적호기심이 발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여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모순될 때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핵심어 :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지적호기심, 미디어 중재, 학습이해도

1. 서론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학문적,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으로 TV와 인터넷, 게임, 그리고 온라인영상 플랫폼까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춘 등, 2007; 장익진, 2007; 조윤경·김영석, 2009; Adelantado-Renau et al., 2019; Jackson et al., 2006; Neuman, 1995; Ramírez et al., 2021). 스스로 이용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오대영·이정기, 2014), 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이정춘 등). 학업 전반에 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특히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실시한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만 9세 이하 어린이는 하루 평균 3시간 6분 정도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 중 77.2%의 어린이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영상을 시청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어린이 대상의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는 비율이 68.3%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 유튜브 사용이 증가하고, 응답 대상의 71.6%는 어린이 본인이 시청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어린이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로, 디지털 원주민을 넘어서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각종 AI기술이 상용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다(이승민·나은선·이평구, 2022; Apaydin & Kaya, 2020). 디지털 기기를 삶의 일부로 여기는 현재의 어린이 세대에게 영상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미디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린이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디어 이용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학습 환경에 디지털 미디어가 이용되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아 교육 기관 등에서 시청각적 특성으로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확한 음정이나 신체 동작 등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안우라·전홍주, 2019).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 시청을 허락하는 동기에도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오락 목적(58.5%)과 새로운 정보 탐색 및 학습 목적(30.6%)이 함께 응답되어 영상미디어 시청이 어린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접하는 채널임을 유추할 수 있다. 호기심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것이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적호기심(Epistemic curiosity, EC)은 새로운 정보 탐색으로 자신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인지적 문제 해결을 하려는 욕구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지적호기심은 학습이해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논의되었는데(Elliot & Church, 1997; Elliot, McGregor, & Gable, 1999; Litman, 2008; Richards,

Litman, & Roberts, 2013)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며 지적호기심이 자극되면 이를 매개해 학습이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어린이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은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이뤄진다. 어떤 미디어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영상미디어에 노출시킬 것인지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고(오주현·박용완, 2019; 조연하·배진아, 2010; Nikken & Schols, 2015),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인 미디어 중재 유형(설명적/제한적/공동 시청)에 따라라도 어린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과 이용 경험, 그리고 공감 등 대인관계 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 등의 사회적 유능성, 학업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강보람·이강이, 2018; 김지선·이강이, 2019; 이창호·장석준, 2022; 최윤정·이종혁, 2021).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태도도 어린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다. 텔레비전이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중재유형을,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긍정적 태도의 부모는 설명적 중재 혹은 공동시청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안정임, 2003; Bybee, Robinson, & Turow, 1982; Van der Voort, Nikken, & Van Lil, 1992).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이 학습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하는 부모가 주양육자이면, 자녀의 학습 관련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고 주의집중력, 부모와의 소통능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주연, 2011). 그러나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인지적 학습 등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태도일지라도, 부모가 선택하는 미디어 중재 전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가 세 가지 미디어 중재 유형 중 어느 것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경험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자녀의 학습 측면에 집중하여,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며 지적호기심을 느끼는 정도를 매개하여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정리하면 미디어에 대해 부모가 내재적으로 지닌 태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전략인 부모의 미디어 중재, 그리고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 시 경험하는 지적호기심을 차례로 매개하여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쇄적 매개효과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만 6~8세의 자녀의 주양육자인 부모 1,0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영향

(1) 자녀의 영상미디어 미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어린이들의 미디어 시청 시간과 이용방식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들 구성원의 수, 가정 미디어 기기 보유 종류 및 개수, 부모의 양육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의 TV 보유기기가 많을수록(Johnson, Chen, Hughes, & O'Connor, 2015; Vaala, Bleakley, & Jordan, 2013),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Vaala & Hornik, 2014) 어린이들은 더 많은 시간동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시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디어 시청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자녀들에게 많은 시청 시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ala & Hornik; Vaala et al.; Vandewater & Lee, 2009).

최근 어린이들의 유튜브 시청량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콘텐츠의 폭력성, 선정성, 외설적이고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42.3%가 긍정적으로, 55.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39.2%의 부모들은 스마트 미디어 사용은 괜찮지만, 시청 시간, 장소 및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오주현·박용완, 2019). 이들은 주로 스마트 폰 중독 및 과의존, 아이의 사회성, 인지발달, 신체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유해콘텐츠 등에 대한 우려때문에 자녀에게 스마트폰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의 영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자과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성격 형성에 대한 영향력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김주아, 2013).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서도 영유아의 부모들은 스마트 폰 앱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한 막연한 교육적 기대를 하고 있으나 교육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모아라, 2017). 또한 미디어를 육아 도구미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발달 과정상의 문제나 중독 등을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8-10세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현대 미디어 문화에 유능함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미디어 문화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 정보가 잘못된 정보, 폭력이나 상업적 선정성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이것들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참 정보를 선별해야 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었다(이란·홍지민, 2014).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상 미디어 이용이 학습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것이다(Rosin, 2013; Vittrup, Snider, Rose, & Rippy, 2016). 특히 유튜브를 통해 간접경험을 확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Holloway, Green, & Love, 2014). 부모들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락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도 어린이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tyrka-Allchorne, Cooper, Simpson, 2017). 반면, 빠른 속도로 편집된 영상들은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폭력물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이 존재하지만, 시청을 하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유아 시절부터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디지털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2세에서 7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흥미롭게도 부모 중 33%는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미디어 노출이 조기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Vittrup et al., 2016). 특히 유아기에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술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유아들의 학습능력을 뒤처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컴퓨터 사용이 장기적인 신체적, 정서적 또는 지적 발달 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소수인 11%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놀라운 것은 약 3분의 2(66%)는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소아과 협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의 교육정도와의 별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우 미국의 남서부의 도시에 거주하는 101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있겠다.

부모들은 또한 유튜브가 자녀들의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유튜브 시청이 또래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유행하는 영상이나 관련 놀이에서 뒤처지지 않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이 유튜브가 진행하는 <보람튜브>같은 프로그램의 시청이 자녀에게 비슷한 또래와 영상을 통해 교류하고, 진행자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다(김은진, 2021). 또한 부모들은 시청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튜브는 어린이들에게 또래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공통 주제를 제공하고 오락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fcom, 2017). 2020년에 실시된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만 5~6세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주된 시청 목적은 유튜브 영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니켄과 솔(Nikken & Schols, 2015)의 연구에서는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를 요인분석했는데, 미디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미디어가 부모대신 아이들을 달래고 평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요인, 미디어 이용과 작동이 자녀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인 이렇게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부모들의 미디어 중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부모들은 공동시청, 설명적 중재, 제한적 중재 등 다양한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행동을 감독하고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시청시간 섣다운 기술 등을 이용해서 시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가 자녀를 달래는 보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시청을 제한하고, 미디어가 자녀에게 너무 복잡하다고 확신하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적고, 대신 미디어 사용을 자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kken & Schols).

이전 세대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어린 자녀의 미디어 노출의 유익성과 적절성에 대해 부모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nhart, Rainie, & Lewis, 2001; Rideout, Vandewater, & Wartella, 2003; St. Peters, Fitch, Huston, Wright, & Eakins, 1991; Woodard & Gridina, 2000).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이 이러한 기술에 더 익숙해지고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요즘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2) 부모의 미디어 중재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시청제한을 목표로 하는 부모의 커뮤니케이션’(Lin & Atkin, 1989),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가 어린이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필요에 따라 차단 또는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방법’(Thierer, 200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부모가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여 미디어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미디어 중재라고 할 수 있다(안정임, 2008). 부모의 중재는 미디어가 폭력 성향을 강화하고 고정관념을 형성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vingstone & Helsper, 2008; Nathanson & Yang, 2003). 즉, 부모의 중재는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을 걸러내는 일종의 교육 수단 혹은 방어 기제의 역할을 수행한다(Colder-Bilz, 1980). 또한 부모 중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비판적 태도를 갖게 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in, 1993; Austin, Pinkleton, & Fujioka, 2000). 최근 유튜브에 대한 부모중재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가 초등학교 자녀의 유튜브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진경·김근영, 2019).

부모들의 미디어 중재는 TV시청의 중재를 대상으로 처음 개념화되었으나 최근 어린이들의 인터넷 기반 미디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중재유형들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리빙스톤과 헬스퍼(Livingstone & Helsper, 2008)는 적극적 공동 이용(Active Co-use), 기술적 제한(Technical Restrictions), 상호작용 제한(Interaction Restrictions), 감시(Monitoring)로 중재 유형을 분류하였고, 안정임(2008)은 대화형, 제한형, 동행형, 감시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TV시청중재 유형은 자녀의 시청시간대, 시간, 내용 등 시청규칙을 명확히 정해주는 제한적 시청중재(restrictive mediation),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판적으로 TV를 시청하도록 지도하는 설명적 시청중재(instructive mediation),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하는 공동시청(co-viewing)으로 분류되고 있다(안정임, 2003; 이은미, 2002; Valkenburg, Krmar, Peeters, & Marseille, 1999; Van der Voort et al., 1992; Warren, 2005; Warren, Gerke, & Kelly, 2002).

제한적 중재는 자녀의 부정적 영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가 특정한 규칙을 정해 자녀의 TV 시청량, 시청 시간대, 프로그램 종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시청 중재는 어린이들의 TV 이용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nrazavi, Teimouri, & Griffiths, 2015; Livingstone & Helsper, 2008; Mesch, 2009). 제한적 중재는 어린이들이 TV 프로그램의 반-사회적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시청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안선경, 2004; An & Lee, 2010; Nathanson, 2001; Van den Bulck & Van den Bergh, 2000), 이러한 인식과 습관이 TV 시청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 아울러 제한적 중재는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노출, 온라인 폭력,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노출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Benrazavi et al., 2015; Livingstone & Helsper, 2008; Mesch, 2009).

설명적 중재는 비고스키(Vygotsky, 1978)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중재방식이다. 비고스키는 어린이들의 인지적 발달은 어

린인들이 능력 밖의 일을 체험하는 근접발달영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경험을 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학습이 최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러한 능력 밖의 어려운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혼자 놀이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어른들이나 성숙한 또래가 새롭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때 아동들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고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들은 양육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고스키의 이러한 관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실험연구들을 통해 혼자 놀이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놀이하거나 부모와 함께 논 이후에 혼자 노는 어린이들이 혼자 노는 어린이들보다 독립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놀이를 하고(Landry, Miller-Loncar, & Swank, 1998), 질적 수준이 높은 놀이를 하고(Alessandri, 1992), 더 집중해서 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wson, Parrinello, & Ruff, 1992). 또한 부모의 언어 자극은 아동의 인지 능력과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e-Stewart, 1973; Olson, Bates, & Bayles, 1984).

미디어 이용에 이러한 학습 모델을 적용할 때, 아동들이 유튜브의 내용을 단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부모가 영상의 다양한 측면과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 시청 시 부모의 적절한 조언, 설명, 해석은 어린이가 발달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중재는 설명적 중재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중재 방식으로 여겨진다. 설명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가 소비하는 미디어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이해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중재방식으로(Komaya & Bowyer, 2000),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프로그램 내용을 해석하고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ntile & Walsh, 2022; Warren, 2001).

마지막 중재 유형인 공동시청 지도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하는 방식이다. 본래 전통적인 TV 시청은 온 가족이 거실의 TV 수상기 앞에 둘러 앉아 함께 시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동시청은 가족 간 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Van den Bulck & Van den Bergh, 2000). 최근 미디어 기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은 혼자 각방에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의 개별 수상기로 TV를 시청하게 되었고, 어린이들도 홀로 시청하는 '고립된 시청(isolated viewing)'을 하게 되었다(Wartella & Jennings, 2001). 특히 유튜브 시청은 주로 모바일 기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의 고립된 시청이 잦아진다. 따라서 아동이 영유아기를 벗어나서 혼자 미디어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되면 공동시청을 하는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부모에 의한 시청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2)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과 인지적 성장

(1) 지적호기심

호기심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는 행동의 동기로서 무언가를 알고, 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Berlyne, 1954; Collins, Litman, & Spielberger, 2004; Litman, 2005), 호기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호기심 충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즐기게 된다(Day, 1982). 그중에서도 지적호기심(Epistemic curiosity, EC)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해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어떤 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Litman & Spielberger, 2003; Piotrowski, Litman, & Valkenburg, 2014). 지적호기심의 자극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로웬스타인(Loewenstein, 1994)의 호기심 자극 이론(curiosity-drive theory)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족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정보를 추구한다(Berlyne, 1950, 1954; Litman & Jimerson, 2004; Loewenstein, 1994)는 주장이다. 어떤 현상이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호해서 지식격차(knowledge gap)가 발생하면 정보의 불균형 상태를 낮추고자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접근 경향성(approach gradient)이 높아져 지적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즉, 자신이 가진 정보의 불충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적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지적호기심 연구의 두 번째 경향은 개인의 내적 동기가 자극되어 새로운 무언가에 흥미를 보인다는 것으로(Day, 1982; Kashdan, Rose, & Fincham, 2004; Spielberger & Starr, 1994), 스피이버거와 스타(Spielberger & Starr)가 제시한 최적자극 모델로 설명된다.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에 대한 즐거운 상태와 불안을 피하고 싶은 상태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각성되는데, 두 요소를 적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지적호기심과 불안이 균형을 이룬다. 다시 말해, 내적동기에 의해 지적호기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부족(deprivation)이나 내적 흥미(interest)로 인해 유발된 지적호기심은 공통적으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작용하는데(Loewenstein, 1994; Spielberger & Starr), 특히 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owski, 2005; Elliot & Church, 1997; Elliot et al., 1999; Hardy, Ness, & Mecca, 2017; Litman, 2008; Richards et al., 2013).

리트먼과 지머슨(Litman & Jimerson, 2004)은 두 가지 이론을 통합하여 지적호기심은 개인이 정보를 박탈당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무지 상태를 줄이거나 없애고 싶을 때, 그리고 특

별히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길 때 유발될 수 있다고 밝히며 흥미추구형(intellectual interest type, I-type EC)과 정보갈망형(informational deprivation type, D-type EC)으로 지적호기심의 하위차원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기존 연구들(Litman, 2005; Litman & Jimerson)에 따르면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이 각성되면 흥미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새로운 정보 접근에 대한 즐거움이 높아져, 배움이나 학습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된다. 반면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이 자극되면 긴장이나 좌절, 불만족 등 충분하지 않은 상태와 연관된 부정적 정서가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이 각성된 상태에서는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가치 있는 사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 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사고를 집중시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효과가 있고 주관적인 유능감 수준이 높아진다(안혜령·노보람·최나야, 2019; Litman; Litman & Jimerson). 지적호기심의 차원과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Piotrowskia et al., 2014)는 두 유형의 지적호기심이 각기 다른 학습영역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새로운 내재적 관심사를 발견하고 학습 그 자체를 즐기는 숙달 지향(mastery-oriented) 학습에는 흥미추구형과 정보갈망형의 지적호기심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성과 중심(performance-approach)의 학습에는 정보갈망형의 지적호기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 목표와 정확하게 관련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작용함을 밝혔다(Piotrowskia et al.).

지적호기심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lyne & Frommer, 1966; Minuchin, 1971; Mittman & Terrell, 1964).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은 유아기 때는 새롭게 접하는 정보(novelty)에 의해 지적호기심이 발달되고, 정보의 복잡함(complexity)과 정보의 변화(variation) 등의 정보의 질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ngel, 2015).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관련 질문을 하고 얼굴표정이나 말로 격려를 받는 등의 상호작용, 특히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적절한 반응성이 유아기 자녀의 지적호기심을 높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Engel; Iwasaki, Moriguchi, & Sekiyama, 2023). 만 4~5세의 유아의 지적호기심에 개인적, 환경적, 경험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국내 연구(안혜령 등, 2019)에 따르면 유아의 적응성 기질과 어머니의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그리고 유아와 주양육자 어머니 간 탐구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높였다. 정보갈망형 호기심에 유의한 영향 요인은 유아-어머니의 탐구적 상호작용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생물과목 관련 지적호기심이 높을수록 친환

경 행동을 많이 하게 됨을 밝혀 지적호기심이 바람직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했다(김홍태·전민정·김재근, 2012).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지적호기심의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인 시청자의 영상미디어 소비는 지적호기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Park, 2007)가 보고되었지만 어린이 대상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지적호기심의 발달에 새로운 정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미디어 시청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알게 되고 등장인물 간 상호작용, 서사의 흐름 등이 새로운 정보로 입력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면 지적호기심이 자극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지적호기심 충족 과정에서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성인 대상으로 알아본 국내연구(성영신 등, 2008)는 호기심이 충족될 때 정서가 함께 촉발됨을 신경영상촬영을 통해 밝혔다. 스스로 지적호기심을 충족하는 경우 만족이나 즐거움의 긍정적인 정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지적호기심 충족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정보적 측면뿐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과정이 더욱 주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의 경우 내재적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주양육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를 영상미디어 시청 상황에 적용하면 부모가 미디어 이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또 어떤 방식의 중재 유형을 선택하는지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적 중재는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반응을, 공동시청은 설명적 중재보다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제한적 중재는 상호작용과 반응을 적게 하는 것이다. 추가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면 제한적 중재는 태도와 모순된 행동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자녀의 미디어의 이용에 긍정적 태도를 가진 부모가 어떤 중재유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지적호기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학습이해도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은 이후 학습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최윤정, 2022), 이러한 태도는 고등학교 성적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Anderson, Huston, Schmitt, Linebarger, & Wright, 2001). 현 세대의 어린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릴 정도로 미디어 이용과 분리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측면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은 사실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

는 요소가 다양하게 제공된다(Takeuchi, 2011). 따라서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어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정재후·김명순, 2003),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작하는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강은진·현은자, 2006; 안지성·조희숙, 2009). 또한 유아의 창의성과 탐구력, 놀이성 향상에 미디어 이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보육과 교육 현장에서 교수매체로써 사용되고 있다(이상화·오새니, 2019; 임철일, 2019). 학교 등 학습 현장에서는 실제로 미디어 기기를 학습에 이용하고 있다 보니, 가정에서 인터넷 연결이 어렵거나 태블릿PC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학업 수행에 제한점이 많다는 조사결과도 존재한다(Vega & Robb, 2019).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국내의 한 조사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로 ‘학업에 방해될까봐’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2.6%에 해당할 정도로(이원섭·조재화·최지선, 2022),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이 학습과 연계되면 더욱 부정적으로 느낀다. 취침 전 유튜브 시청이 수학 교과목 하락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교육백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를 대표로,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른 시기의 미디어 노출과 과다이용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 사회성 결여 등 부정적 효과를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권장희, 2012; 김지현·오선진, 2016; 박소영·문혁준, 2012; 이상화·오새니, 2019; 이숙희, 2010; Cordes & Miller, 2000; 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5). 실제로 초중등생의 스마트폰 이용은 학업에 적응하는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장윤재, 2020), 특히 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학습과정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학업열의가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혜준·임규연, 2021).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 열의가 줄어든다고 설명하기도 한다(Zhen, Li, Ding, Hong, & Liu, 2020).

한편 사회적 유능감이나 또래관계 등의 매개변인을 거치면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만 6~7세의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알아본 연구(이상화·오새니, 2019)에 따르면 놀이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 수행, 사회적 관계 등의 초등학교 적응 정도는 부적 효과를 보였지만(직접효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을 매개하면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하게 미디어 이용목적에 따라 학업에 적응하는 정도를 살펴본 연구(장윤재, 2020)에서도 오락 목적의 이용시간은 학업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관계를

매개하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자체는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용목적과 방식에 대한 지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유튜브 시청에 부모가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를 하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최운정, 2022)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만 6~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시청이 학습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연구대상 어린이들은 인생의 경험이 적어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더 많은 세대이고, 학습과 휴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에 미디어를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의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학습 역시 교육의 주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의 학습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에 큰 역할을 하는 부모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태도(어린이 자녀가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구체적인 행동(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에 따라서 어린이의 지적호기심을 매개해 학습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어린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미디어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요인과 자녀의 요인의 연쇄적 효과를 알아보려 한다. 부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기대 및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미디어 중재 유형(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을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어린이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면서 느끼는 지적호기심(흥미추구형/정보갈망형)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투입하고, 자녀의 학습이해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했다. 관련해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과 자녀의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 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과 자녀의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 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반영한 본 연구의 모형을 <Figure 1>에 제시했다. 이 연구모형을 분석하면 총 세 가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다. 독립변인에서 시작해 첫 번째 매개변인인 부모의 중재(설명/제한/공동시청)를 거쳐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매개효과와, 독립변인에서 두 번째 매개변인인 지적호기심(흥미추구형/정보갈망형)을 거쳐 종속변인에 이르는 두 번째 매개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매개변인을 연쇄적으로 매개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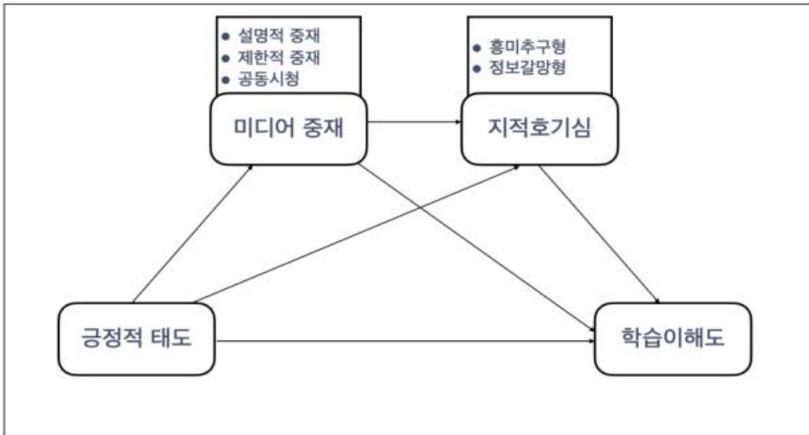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of serial mediation

4.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수행했다. 국내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현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공교육을 시작하는 전후 연령 어린이의 학습이해도를 알아보는 것이 본격적인 학습기에 진입한 초등 중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미디어 이용에 있어 부모의 영향요인이 잘 드러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설문의 응답 대상은 만 6~8세의 자녀의 주양육자로 선정했으며, 설문조사 시작 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뒤 취침 전까지 주로 아이를 일관성 있게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중 진행되었으며 분석에 사용한 최종 응답 수는 1,020건이다. 응답자의 대부분(85.9%)이 876명이 여성(엄마)이고, 144명(14.1%)이 남성(아빠)이다. 평균연령은

40.49세이고 표준편차는 3.90이다. 부모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명(0.29%), 고등학교 졸업이 83명(8.14%), 전문대 졸업이 182명(17.84%), 4년제 대학졸업이 532명(52.16%), 대학원 이상이 118명(11.57%)이다. <Table 1>에 설문에 응답한 주양육자 부모의 성별과 학력을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s of survey participants

변인						계
성별	여성(엄마)	남성(아빠)				
	876(85.9)	144(14.1)				102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3(.29)	83(8.14)	182(17.84)	532(52.16)	118(11.57)	1020 (100.0)

2) 측정 변인

자녀의 학습이해도와 지적호기심, 부모의 영상 미디어 이용 중재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의 변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으며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다. 각 변인의 측정항목과 평균, 표준편차 값은 아래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Variables and Mean Table

변인	측정항목	M	SD	α	ω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2.85	.72	.92	.92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예체능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영상 미디어 이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명적 중재	영상 속 인물들의 행동이 왜 좋은지 알려준다	3.54	.63	.82	.82
	영상 속 인물들의 행동이 왜 나쁜지 알려준다				
	영상에 나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준다				
	영상에 어린이들이 갖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숨겨진 광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한적 중재	시청 시간을 제한한다	4.09	.63	.77	.78
	특정 프로그램(내용)을 보는 것을 금지한다				
	시청 양을 제한한다				

공동 시청	영상을 아이와 같이 본다	3.16	.75	.84	.84
	영상 안에 아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본다				
	재미를 위해 같이 본다				
	영상을 보고 같이 웃는다				
흥미 추구형 자적 호기심	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3.50	.073	.80	.83
	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자신의 즐거움을 걸기로 드러낸다.				
	영상을 통해 새로운 주제나 대상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영상 속 새로운 사물들에 흥미를 보인다				
정보 갈망형 자적 호기심	헛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이나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3.21	.73	.87	.87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신경쓰지 않고 넘기는 편이다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려 한다				
학습 이해도	귀하의 자녀는 국어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5	.64	.82	.82
	귀하의 자녀는 영어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수학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사회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과학 교과목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녀의 학습이해도

자녀의 학습이해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각 교과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또래에 비해 어떠한지를 측정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어동태조사에서의 학업 이해도 항목을 활용하였다. 신뢰도와 단일차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값과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이 이용했다. 자녀의 학습이해도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등 다섯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와 맥도날드의 오메가 두 가지 지표를 분석했다. 맥도날드 오메가는 크론바흐의 알파보다 측정항목의 수에 따라 변화가 적고 크론바흐 알파의 계산식이 단일차원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Graham, 2006)과 달리 단일차원성을 검증할 수 있다(Hayes & Coutts, 2020)는 장점을 가진다. 크론바흐 알파는 .82이고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도 .82로 자녀의 학습이해도 변인은 단일한 차원이며 수용 가능한 신뢰도를 가짐을 확인했다($M=3.45$, $SD=.64$).

(2) 지적호기심

지적호기심은 흥미추구형(I-type EC)과 정보갈망형(D-type EC)의 하위차원을 가지는 개념으로, 어린이의 지적호기심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척도는 피오토로프스키 등(Piotrowski et al., 2014)이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피오토로프스키 등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버전(안혜령 등, 2019)을 사용하였다. 안혜령 등(2019)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는 아동학 전공의 박사 2인과 박사수료 2인이 내용타당도 점검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 수행 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2인이 항목 사용 전 원 척도와 비교하여 다시 한 번 내용타당도 점검을 하였다. 해당 척도는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에 대해 5항목,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에 대해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 10개 항목을 포함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에는 네 항목,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에는 세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에 대해 크론바흐 알파는 .80,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은 .83이었다($M=3.50$, $SD=.73$).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은 크론바흐 알파 값이 .87이고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도 .87로 나타났다($M=3.21$, $SD=.73$).

(3) 부모의 영상 미디어 이용 중재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모의 중재를 위해 발켄버그 등(Valkenburg et al., 1999)이 제시한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인 영상 미디어 이용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부모의 중재를 측정하였다. 영상 미디어 중재는 설명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시청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설명적 중재는 '아이가 영상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가 영상에서 보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등의 항목을 포함한 4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은 .82, 맥도날드의 오메가 값이 .82로 나타났다($M=3.54$, $SD=.63$). 제한적 중재는 '시청 시간을 제한한다'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했고, 크론바흐 알파 값은 .77, 오메가 값이 .78이었다($M=4.09$, $SD=.63$). 공동시청의 경우 '영상을 아이와 같이 본다' 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했고, 크론바흐 알파는 .84, 오메가 값이 .84였다($M=3.16$, $SD=.75$).

(4)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항목을 이용했다(Elias & Sulkin, 2017; Wartella, Rideout, Lauricella, & Connell, 2013). 구체적으로 읽기, 말하기, 외국어 등의 학습능력과 사회성과

행동,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측정 항목 9가지의 크론바흐 알파 값과 오메가 값은 모두 .92로 단일한 차원이면서 높은 신뢰도값을 확인했다($M=2.85$, $SD=.72$).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 부모의 태도가 구체적인 중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 이해도에 미치는 연쇄적 매개효과로 알아보고자 설계되었다. 매개효과와 통계분석을 위해 헤이스(Hayes, 2012)가 개발 및 배포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헤이스(Hayes, 2013)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간접효과 분석법으로 널리 사용된 소벨 검정이 표집분포의 정규분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5000~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프로세스 매크로는 다양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Hayes, Montoya, & Rockwood, 2017),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도구이다(이현웅, 2014).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은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하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우도법(ML)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매개변인이 포함되어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독립변인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6변 모델은 선택하였다. 6변 모델은 여러 개의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고, 각 매개변인의 매개효과와 매개변인들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연쇄매개효과(serial mediation)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학습관련 미디어 이용 경험과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요인과 어린이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쇄적 매개효과 분석 방법으로 프로세스 매크로의 모델 6번을 적용하였다. 헤이스(Hayes, 2012)가 제시한 76가지의 프로세스 모델 가운데 6번 모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여러 개의 매개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처럼 두 개의 매개변인이 포함된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한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를 독립변인, 부모의 영상미디어 이용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인, 자녀의 지적호기심 수준을 두 번째 매개변인, 자

녀의 학습이해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프로세스 매크로의 6번 모델에서 제시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두 개의 매개변인을 이용, 직접효과와 세 가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R 4.3.3 버전을 사용하였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모형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했다. 각 변인들의 하위차원을 고려하여 독립변인인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첫 번째 매개변인인 세 가지 영상 미디어의 중재 유형(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 자녀의 지적호기심 두 가지 차원(흥미추구형/정보갈망형), 학습이해도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 태도와 제한적 중재 유형 사이에서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r = -.10$, $p < .05$),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대해 부모 관련 변인들과 자녀의 지적호기심 관련 변인이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과 학습이해도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임을 재확인했다.

연쇄적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인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에 태도가 종속변인인 자녀의 학습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매개변인(M1)으로 부모의 중재 유형(설명적 중재/제한적 중재/공동시청), 두 번째 매개변인(M2)으로 자녀의 지적호기심(흥미추구형/정보갈망형)을 이용해 헤이즈(Hayes, 2013)의 프로세스 매크로의 6번 모델을 사용해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긍정적 태도	설명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시청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학습이해도
긍정적 태도	-	.50 [*]	-.10 [*]	.34 [*]	.13 [*]	.27 [*]	.16 [*]
설명적 중재		-	.18 [*]	.45 [*]	.33 [*]	.31 [*]	.16 [*]
제한적 중재			-	.09 [*]	.15 [*]	.12 [*]	.12 [*]
공동시청				-	.10 [*]	.26 [*]	.14 [*]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	.51 [*]	.10 [*]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	.27 [*]
학습이해도							-

* $p < .05$

부트스트래핑 5000회 분석을 각 변인의 하위 차원을 조합하여 총 6회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두 번째 매개변인인 지적호기심의 하위차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먼저 <Table 4>에는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하는 세 가지 미디어 중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먼저 설명적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효과의 경우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는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1, p < .001, LLCI = .0388, ULCI = .1615$). 간접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인에서 출발해 첫 번째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이르는 첫 번째 경로만이 유의하였다($\beta_1 = .04, LLCI = .0011, ULCI = .0806$). 두 번째 매개변인인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포함하는 경로는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 가운데 제한적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이용한 분석 결과,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Table 4. The Serial Mediation Results of Parental Media Mediation and I Type Epistemic Curiosity on Children's Learning Comprehension

직접효과	β	SE	t	p	95% CI	
					LLCI	ULCI
설명적 중재	.11	.03	3.20	<.001	.0388	.1615
제한적 중재	.17	.03	5.35	<.001	.0928	.2003
공동시청	.12	.03	3.63	<.001	.0483	.1620
간접효과	β	Boot SE	95% CI			
			LLCI	ULCI		
설명적 중재						
Ind1: X→M1→Y	.04	.02	.0011	.0806		
Ind2: X→M2→Y	-.00	.00	-.0100	.0018		
Ind3: X→M1→M2→Y	.01	.01	-.0017	.0238		
X=부모의 긍정적 태도, M1=설명적 중재, M2=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Y=학습이해도						
제한적 중재						
Ind1: X→M1→Y	-.01	.01	-.0249	-.0029		
Ind2: X→M2→Y	.01	.01	-.0010	.0210		
Ind3: X→M1→M2→Y	.00	.00	-.0028	.0001		
X=부모의 긍정적 태도, M1=제한적 중재, M2=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Y=학습이해도						
공동시청						
Ind1: X→M1→Y	.03	.01	.0066	.0599		
Ind2: X→M2→Y	.01	.00	.0008	.0191		
Ind3: X→M1→M2→Y	.00	.00	-.0004	.0046		

태도가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7, p < .001, LLCI = .0928, ULCI = .2003$). 간접효과의 경우, 독립변인-첫 번째 매개변인-종속변인의 첫 번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표준화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학습이해도를 낮췄다($\beta_1 = -.01, LLCI = -.0249, ULCI = -.0029$). 두 번째 매개변인인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포함하는 경로, 독립변인-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 독립변인-제한적 중재-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이용할 때 부모가 공동시청하는 유형의 미디어 중재와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해 연쇄적 매개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기대와 태도는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정의 직접효과를 보였다($\beta = .12, p < .001, LLCI = .0483, ULCI = .1620$). 간접효과의 경우, 부모의 기대는 공동시청을 거쳐 학습이해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_1 = .03, LLCI = .0066, ULCI = .0599$). 또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_2 = .01, LLCI = .0008, ULCI = .0191$). 두 매개변인을 모두 매개하는 세 번째 간접효과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는 지적호기심의 정보갈망형 차원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투입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독립변인, 설명적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인,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 그리고 자녀의 학습이해도를 종속변인으로 연쇄적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진다($\beta = .07, p = .03, LLCI = .0055, ULCI = .1261$). 부모의 기대에서 설명적 중재를 거쳐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첫 번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서 시작해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두 번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beta_2 = .04, LLCI = .0172, ULCI = .0584$). 또한 부모의 기대에서 시작해 설명적 중재를 매개하고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매개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세 번째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했다($\beta_3 = .03, LLCI = .0169, ULCI = .0409$). 두 매개경로 모두 자녀의 학습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부모의 기대를 독립변인, 제한적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인,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 그리고 자녀의 학습이해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해 연쇄적 매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접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1, p < .001, LLCI = .0426, ULCI = .1508$), 간접효과의 경우 세 가지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첫

Table 5. The Serial Mediation Results of Parental Media Mediation and D Type Epistemic Curiosity on Children's Learning Comprehension

직접효과	β	SE	t	p	95% CI	
					LLCI	ULCI
설명적 중재	.07	.03	2.14	.03	.0055	.1261
제한적 중재	.11	.03	3.51	<.001	.0426	.1508
공동시청	.08	.03	2.45	<.001	.0140	.1265
간접효과	β	SE	t	p	95% CI	
					LLCI	ULCI
설명적 중재						
Ind1: X→M1→Y	.02	.02			-.0136	.0593
Ind2: X→M2→Y	.04	.01			.0172	.0584
Ind3: X→M1→M2→Y	.03	.01			.0169	.0409
X=부모의 긍정적 태도, M1=설명적 중재, M2=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Y=학습이해도						
제한적 중재						
Ind1: X→M1→Y	-.01	.01			-.0215	-.0020
Ind2: X→M2→Y	.07	.01			.0444	.0895
Ind3: X→M1→M2→Y	-.01	.00			-.0066	-.0008
X=부모의 긍정적 태도, M1=설명적 중재, M2=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Y=학습이해도						
공동시청						
Ind1: X→M1→Y	.02	.01			-.0061	.0432
Ind2: X→M2→Y	.05	.01			.0296	.0690
Ind3: X→M1→M2→Y	.02	.00			.0091	.0244
X=부모의 긍정적 태도, M1=공동시청, M2=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Y=학습이해도						

번째 경로의 결과는 부모의 기대가 긍정적이다하더라도 제한적 중재를 실시하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01$, LLCI = $-.0215$, ULCI = $-.0020$). 두 번째 경로인 부모의 기대-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는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beta_2 = .07$, LLCI = $.0444$, ULCI = $.0895$). 세 번째 경로인 부모의 기대-제한적 중재-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_3 = -.01$, LLCI = $-.0066$, ULCI = $-.0008$).

마지막으로 부모의 중재유형이 공동시청일 때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기대가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 = .08$, $p < .001$, LLCI = $.0140$, ULCI = $.1265$) 간접효과인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두 번째 경로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적 효과를 보였고($\beta_2 = .05$, LLCI = $.0296$, ULCI = $.0690$),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기대가 자녀와 부모의 공동시청형 중재를 거치고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거쳐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이르는 경로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_3 = .02$, LLCI=.0091, ULCI=.0244).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아래 <Figure 2>에 제시하였다.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한 결과부터 살펴보면,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태도는 세 가지 중재 유형을 매개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 유형의 중재를 매개하면 학습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적 중재를 하면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흥미추구형 호기심의 경우, 공동시청 유형의 미디어 중재를 할 때 학습이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미디어 중재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의 경우,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의 간접효과와 미디어 중재와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의 연쇄적 매개효과가 정적임을 확인했다. 제한적 중재의 경우, 세 가지 가능한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효과계수의 부호가 변화했다.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이지만 제한적 중재를 매개하면 자녀의 학습이해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경로인 부모의 태도에서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매개하는 경로는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처럼 상반된 효과를 가지는 가운데, 두 매개변인을 모두 경유하는 연쇄적 매개효과 경우 표준화계수값이 -0.01 로 학습이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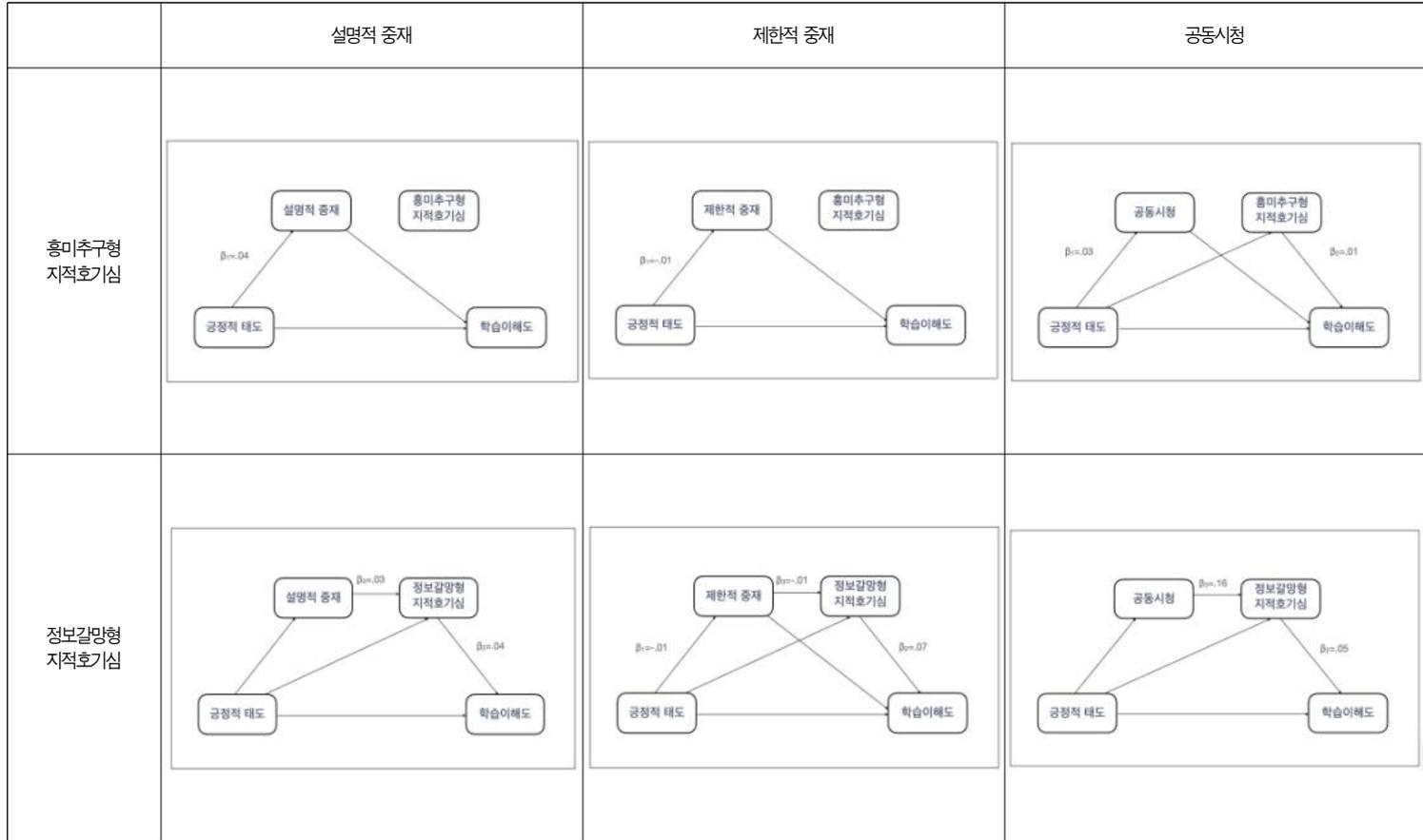


Figure 2. Results of serial mediation

6. 논의

본 연구는 만 6~8세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과 학습이해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양육자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미디어 중재 행동, 그리고 영상미디어 시청 시 어린이가 경험하는 지적호기심 수준 등의 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만 6~8세의 어린이 자녀를 양육하는 1,0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쇄적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연구대상 어린이들은 각종 온라인 기술과 인공지능이 상용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기기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대이다. 실제로 만 9세 이하 어린이 대상의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 유튜브 시청을 시작한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가량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본 연구는 이런 특징의 어린이들이 본격적인 초등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영상미디어 시청이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양육자 부모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즉 어린이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함으로써 인지, 정서, 미디어 기기 활용능력 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자녀가 영상미디어 시청 상황에 부모가 선택하는 미디어 중재의 효과를 확인했다. 미디어 중재는 부모가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여 미디어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늘리려는 행위로, 앞서 설명한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모순되게 나타날 수 있다. 자녀가 미디어 이용 시 폭력적, 선정적 내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시청시간을 정해두는 적극적인 제한적 중재 전략을 취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인지, 정서 등의 발달에 미디어 이용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믿는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한적 중재, 선택적 중재, 공동시청 세 가지의 미디어 중재 행동을 매개하여 부모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모 요인과 함께 어린이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지적호기심을 경험하는 정도를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선정해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지적호기심은 새로운 정보를 탐색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인지적 해결을 지향하는 욕구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흥미추구형과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정보갈망형으로 구분된다(Piotrowski et al., 2014). 지적호기심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 많은 유아기에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며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후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흥미추구형은 내재적인 동

기가 자극되어서 학습 그 자체를 즐기게 되어 학습효과가 높아지고(Litman, 2005; Litman & Jimerson, 2004), 정보갈망형은 성과중심형 학습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집중력 향상, 정확한 문제 파악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안혜령 등, 2019; Litman, 2005; Litman & Jimerson, 2004).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지적호기심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이뤄졌지만, 본 연구는 각종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어린이에게는 영상미디어 시청을 통한 간접경험 또한 지적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중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를 지적호기심의 차원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차원이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경우, 설명적 중재 차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태도-설명적 중재-학습이해도'의 첫 번째 간접효과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의 효과를 보였다. 제한적 중재 차원에 대해서는 역시 '부모의 긍정적 태도-제한적 중재-학습이해도'의 첫 번째 간접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태도와 모순되게 제한적 중재 전략을 택하는 경우 어린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는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 공동시청의 미디어 중재 차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태도-공동시청-학습이해도의 첫 번째 간접효과 경로와 '부모의 긍정적 태도-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의 두 번째 간접효과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공동시청의 중재 방식은 설명적 중재와 달리 영상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해석 단서 제공 등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린이 자녀가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이 자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매개변인을 모두 경유하는 연쇄적 매개효과는 흥미추구형 지적호기심 차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재 유형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한 이중매개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의 경우 '부모의 긍정적 태도-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정의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두 가지 매개변인을 모두 매개하는 '부모의 긍정적 태도-미디어 중재-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의 경로도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어린이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부모가 특별한 대화 없이 함께 시청하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 어린이는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이 자극되고 학습 시 이해를 더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제한적 중재의 경우, 세 가지 간접효과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첫째로 '부모의 긍정적 태도-제한적 중재-학습이해도' 경로는 부적인 효과를 보여 부모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중재 행동을 하면 자녀의 학습이해도를 감소시켰다. 두 번째 '부모의 긍정적 태도-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

이해도'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존재해 제한적 중재를 매개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 '부모의 긍정적 태도-제한적 중재-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학습이해도'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긍정적 태도가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매개할 때는 학습이해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태도와 모순되는 제한적 중재를 사용하는 경우 효과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유발될 때 새로운 것을 더 잘 배우기 때문에 지적호기심을 높이는 것이 학습의 핵심요소라고 여겨진다(Engel, 2015). 어린이 교육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에 비해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지만(안우리·전홍주, 2019), 메타버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알파세대 어린이들은 미디어 경험 또한 직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디지털 기기 이용에 능숙하고 미디어 정보 수용 또한 뛰어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해 아직 아는 것이 적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이 영상미디어 시청 시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지적호기심이 자극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은 주양육자 부모에게 종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 시청이 지적호기심과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부모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부모의 태도와 미디어 중재 행동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 시 부모가 대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함께 이용하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설명적 중재와 공동시청의 중재는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을 이 중매개해 학습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도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제한적 중재방식을 택한 부모는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태도일지라도,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보갈망형 지적호기심 차원은 학습이해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으나, 제한적 중재를 첫 번째 매개변수로 한 연쇄적 매개효과는 학습이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효과가 반전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녀의 학습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자신의 학교 성적에 불만족하게 한다는 초등 4학년을 대상의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박혜선·김형모,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초등교육의 시작 시기에 속하는 만 6~8세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이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의 관계 탐색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의 응답이 아닌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어린이의 지적호기심과 학습이해도 관련 질문을 어린이 본인이

아닌 부모가 응답했는데, 학습이해도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지적호기심의 경우 질문을 하는 등의 표현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추후 신경영상촬영 등의 연구기법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 어린이의 연령을 만 6세에서부터 8세까지로 선정하였는데, 한국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령을 고려한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만 6세까지는 보육기에 포함되고 만 7세부터 12세까지는 학령기로 포함된다.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교분석으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셋째, 각 변인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과 측정항목 등을 살펴보는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변인들 간 영향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미치는 부모의 요인은 본 연구에서 다룬 긍정적 태도와 미디어 중재 유형 외에도 미디어 기기에 대한 접근(Chiong & Shuler, 2010)이나 부모의 학력과 취업 여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2.16%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1.57%나 되어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고학력이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갖고 이 같은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학력수준과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지적호기심이 영상미디어 시청을 통해 경험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태도와 미디어 중재 유형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흥미추구형과 정보갈망형으로 구분되는 지적호기심의 차원에 따라서 학습이해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학습 관련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율적인 동기를 가질 때 학습에 더 몰입하게 되고 학습의 성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박성익·김연경: 2006; 이민희·정태연, 2008), 학습을 시작하고 새로운 정보의 노출량이 많은 시기의 어린이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를 활용해 어린이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인지적 성장과정에 영상미디어 시청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본 연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delantado-Renau, M., Moliner-Urdiales, D., Cavero-Redondo, I., Beltran-Valls, M. R., Martínez-Vizcaino, V., & Álvarez-Bueno, C. (2019). Association between screen media use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173*(11), 1058-1067.
- Ahn, H. R., Roh, N., & Choi, N. Y. (2019). The influence of toddlers' intellectual curiosity on toddlers' temperament, maternal intellectual curiosity, and exploratory interactions between toddlers and mothers.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10*(4), 1-28. [안혜령·노보람·최나야 (2019). 유아의 지적호기심에 대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지적호기심, 유아-어머니 탐구적 상호작용의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0권 4호, 1-28.]
- Ahn, J. I. (2003). A study on types and related variables of TV viewing medi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32-353. [안정임 (2003).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332-353.]
- Ahn, J. I. (2008). A study on types and antecedents of internet usage media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Studies*, *22*(6), 230-266. [안정임 (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6호, 230-266.]
- Ahn, J. S., & Cho, H. S. (2009). Exploring young children's media literacy through advertising creation activitie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Studies*, *8*(2), 1-21. [안지성·조희숙 (2009). 광고 만들기 활동에 나타난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탐구. <어린이미디어연구>, 8권 2호, 1-21.]
- Ahn, S. K. (2004). The influence of parental guidance on children's perception of reality and viewing behavior. *Speech Communication*, *3*, 104-133. [안선경 (2004). 부모의 시청지도가 자녀의 현실인식 및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권, 104-133.]
- Alessandri, S. M. (1992). Attention, play, and social behavior in ADHD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289-302.
- An, S. K., & Lee, D. (2010). An integrated model of parental mediation: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children's perception of television reality and negative viewing effec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4), 389-403.
- An, W., & Jeon, H. (2019). Teachers' perceptions of digital media 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interviews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Research*, 18(3), 81-108. [안우리·전홍주 (201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디지털매체 활용에 대한 유아 교사들의 인식: 유아교사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8권 3호, 81-108.]
- Anderson, D. R., Huston, A. C., Schmitt, K. L., Linebarger, D. L., & Wright, J. C. (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The recontact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 1-154.
- Apaydin, Ç., & Kaya, F. (2020). An analysis of the preschool teachers' views on Alpha generation.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6(11), 123-141.
- Austin, E. W. (1993). Exploring the effects of active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cont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7(2), 147-158.
- Austin, E. W., Pinkleton, B. E., & Fujioka, Y. (2000). The role of interpretation processes and parental discussion in the media's effects on adolescents' use of alcohol. *Pediatrics*, 105, 343-349.
- Benrazavi, R., Teimouri, M., & Griffiths, M. (2015). Utility of parental mediation model on youth's problematic online ga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ddiction*, 13, 712-727.
- Berlyne, D. E. (1950). Novelty and curiosity as determinants of exploratory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1(1), 68-80.
- Berlyne, D. E. (1954). A theory of human curios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Section*, 45(3), 180-191.
- Berlyne, D. E., & Frommer, F. D. (1966). Some determinants of the incidence and content of children's questions. *Child Development*, 37(1), 177-189.
- Borowski, K. (2005, April). *Curiosity and motivation-to-learn*. Paper presented at ACRL 12th National Conference, Minneapolis, MN.
- Bybee, C. R., Robinson, D., & Turow, J. (198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for a special subgroup: Mass media schola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6(3), 697-710.
- Chang, I. J. (2007). The effect of mass media on cognitive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mass media use, multiple intelligences, and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37(1), 377-417. [장익진 (2007). 매스미디어의 인지개발효과: 매스미디어 이용과 다중지능, 그리고 학업성적과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37권 1호, 377-417.]
- Chiong, C., & Shuler, C. (2010, October). Mobile devices, apps, and learning: Research results. In *Learning: Is there an app for that* (pp. 14-21). New York: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 Cho, Y. H., & Bae, J. A. (2010). Study on media usage mediation within the family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Media, Gender & Culture*, 13, 37-74. [조연하·배진아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37-74.]
- Cho, Y. K., & Kim, Y. S. (2009). The influence of adolescent TV and internet usage on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Studies*, 23(5), 380-417. [조윤경·김영석 (2009). 청소년의 TV·인터넷 이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380-417.]
- Choi, Y. J. (2022). The influence of initial adolescent YouTube viewing on academic achievement: Validation of the regulatory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peer mediation, and parental YouTube viewing volume. *Comprehensiv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8(2), 83-116. [최윤정 (2022). 초기 청소년들의 유튜브 시청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중재, 또래 중재, 부모의 유튜브 시청량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논총>, 38권 2호, 83-116.]
- Choi, Y. J., & Lee, J. H. (2021). The influence of parental mediation and media education on adolescent YouTube usage: Analysis of differential effects by grade level. *Journal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search*, 113, 141-171. [최윤정·이종혁 (2021). 부모 중재와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유튜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 분석. <방송통신연구>, 통권 113호, 141-171.]
- Clarke-Stewart, K. A. (1973). Interactions between and their young children: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6/7), 1-109.
- Colder-Bilz, C. R. (1980). Mediation: The role of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6-118.
- Collins, R. P., Litman, J. A., & Spielberger, C. D. (2004). The measurement of perceptual curios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5), 1127-1141.
- Cordes, C., & Miller, E. (2000). *Fool's gold: A critical look at computers in childhood*. College Park, MD: Alliance for Childhood.
- Day, H. I. (1982). Curiosity and the interested explorer. *Performance and Instruction*, 21(4), 19-22.
- Elias, N., & Sulkin, I. (2017). YouTube viewers in diapers: An explor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amount of toddlers' online viewing.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11(3), 2.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lliot, A. J., McGregor, H. A., & Gable, S. (1999). Achievement goals, study strategies, and exam

- performance: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3), 549-563.
- Engel, S. (2015). *The hungry mind: The origins of curiosity in child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omotion (2020). *Children and media in Korea 2020*. Seoul: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omo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omotion (2023). *Children and media in Korea 2023*. Seoul: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omo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Gentile, D. A., & Walsh, D. A. (2002). A normative study of family media habi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157-178.
- Graham, J. M. (2006). Congeneric and (essentially) tau-equivalent estimates of score reliability: What they are and how to use the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 930-944.
- Hardy, J. H., III, Ness, A. M., & Mecca, J. (2017). Outside the box: Epistemic curiosity as a predictor of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creative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230-237.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yes, A. F., & Coutts, J. J. (2020). Use omega rather than Cronbach's alpha for estimating reliability. *But...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14(1), 1-24.
- Hayes, A. F., Montoya, A. K., & Rockwood, N. J. (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1), 76-81.
- Holloway, D., Green, L., & Love, C. (2014). 'It's all about the apps': Parental mediation of pre-Schoolers' digital lives.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53(1), 148-156.
- Im, C. I. (2019, June). Education and medi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ren's Media, Seoul. [임철일 (2019,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미디어>.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 Iwasaki, S., Moriguchi, Y., & Sekiyama, K. (2023). Parent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trait epistemic curiosity.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75489.
- Jackson, L. A., Von Eye, A., Biocca, F. A., Barbatsis, G., Zhao, Y., & Fitzgerald, H. E. (2006). Does home internet use influenc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low-incom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29-436.
- Jang, Y. J. (2020). The influence of mobile phone use for entertainment vs. convenience vs. information-seeking on academic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oncentration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1*(2), 321-342. [장윤재 (2020). 오락, 편의,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주의집중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권 2호, 321-342.]
- Jeong, J., & Kim, M. (2003). Differences i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by type of automated and printed stories and level of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Child Studies, 24*(5), 15-26. [정재후·김명순 (2003). 전자동화 및 인쇄동화 유형과 읽기 이해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이야기 이해 차이. <아동학회지>, 24권 5호, 15-26.]
- Johnson, L., Chen, T. A., Hughes, S. O., & O'Connor, T. M. (2015). The association of parent's outcome expectations for child TV viewing with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TV viewing: An examination using path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2*, 1-9.
- Kang, B. R., & Lee, K. I. (2018). The influence of media usage tim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on toddlers' empathy. *Studies in Human Development, 25*(1), 1-23. [강보람·이강이 (2018). 미디어사용 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권 1호, 1-23.]
- Kang, E. J., & Hyun, E. J. (2006). A qualit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media literacy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6*(1), 211-232. [강은진·현은자 (2006).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26권 1호, 211-232.]
- Kashdan, T. B., Rose, P., & Fincham, F. D. (2004).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3), 291-305.
- Kim, E. J. (2021). Study on 'YouTube parenting': Mothers' use and control of YouTube in childcare processes. *Regional and Communication, 25*(3), 41-85. [김은진 (2021). '유튜브 육아' 연구: 육아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과 통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권 3호, 41-85.]
- Kim, H. J., & Im, K. Y.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istency of parenting attitudes, frequency of smartphone use, smartphone dependence, and academic enthusiasm: Differences by school level.

Journal of Future Education Studies, 34(2), 105-131. [김혜준·임규연 (2021). 양육태도의 일관성, 스마트폰 사용 빈도,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열의의 관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미래교육학연구>, 34권 2호, 105-131.]

Kim, H. T., Jeon, M. J., & Kim, J.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imacy with biology, intellectual curiosity, experience with nature and biolog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1(2), 197-207. [김흥태·전민정·김재근 (2012). 초등학교생의 생물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및 지적호기심, 자연 및 생물에 대한 경험과 환경 친화적 행동의 관계. <초등과학교육>, 31권 2호, 197-207.]

Kim, J. (2013).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infants' smartphone us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4(4), 545-569. [김주아 (2013). 영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권 4호, 545-569.]

Kim, J. H., & Oh, S. J. (2016). The influence of toddlers' smartphone usage habits and self-regulation on their socia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6(4), 67-91. [김지현·오선진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권 4호, 67-91.]

Kim, J. S., & Lee, K. I.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media literacy, smart media mediation, toddlers' smart media usage time,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Studies*, 40(6), 63-76. [김지선·이강이 (2019).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0권 6호, 63-76.]

Komaya, M., & Bowyer, J. (2000). College-educated mothers' ideas about television and their active mediation of viewing by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3), 349-361.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3). *2023 Digital education white paper*. Daegu: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2023 디지털교육백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styrka-Allchorne, K., Cooper, N. R., & Simpson, A.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vision exposure and children's cognition and behaviour: A systema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44, 19-58.

Kwon, J. H. (2012, October). The influence of smart devices and other audiovisual media on infan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care Support, Seoul. [권장희 (2012, 10월). <스마트 기기 등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

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Landry, S. H., Miller-Loncar, C. L., & Swank, P. R. (1998). Goal-directed behavior in children with Down's syndrome: The role of joint play situation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9*(4), 375-392.
- Lawson, K. R., Parrinello, R., & Ruff, H. A. (1992). Maternal behavior and infant atten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15*(2), 209-229.
- Lee, C. H., & Jang, E. J. (2022).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YouTube and gaming usage time: A comparison of parental mediation factors between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Media Studies, 2*(1), 197-213. [이창호·장석준 (2022). 어린이의 유튜브 및 게임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중재요인 분석: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초등저학년) 비교. <어린이미디어연구>, 2권 1호, 197-213.]
- Lee, E.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guidance pattern on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6*(3), 397-421. [이은미 (2002).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 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방송학보>, 16권 3호, 397-421.]
- Lee, H. Y. (2014).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2), 225-249. [이현음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16권 2호, 225-249.]
- Lee, J. K., & Kim, K. Y. (2019). The effects of toddlers' YouTube usag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upbringing style,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 699-707. [이진경·김근영 (2019).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과 심리적 적응: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권 12호, 699-707.]
- Lee, J. (2011). Parents' perceptions of smartphone app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Focusing on children's behavior pattern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이주연 (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유아의 행동패턴에 따른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Lee, M. H. & Jung, T. Y. (2008). Examin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al process model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77-99. [이민희·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권 1호, 77-99.]
- Lee, R., & Hong, J. (2014). A study on parents' mental models of media environment and children's media

-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4(12), 818-834. [이란·홍지민 (2014).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12호, 818-834.]
- Lee, S. (2010). The study of aggression and change to social relationship on early childhood's computer game addi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185-202. [이숙희 (2010). 컴퓨터 게임 중독 이행과 유아의 공격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권 1호, 185-202.]
- Lee, S., & Oh, S. (2019). The effect of media utilization in early childhood on the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ocial competence mediated effect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8(2), 89-108. [이상희·오새니 (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권 2호, 89-108.]
- Lee, S. M., Na, E. S., & Lee, P. G. (2022). A surve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pha Generation of toddl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7), 183-199. [이승민·나은선·이평구 (2022). 알파(Alpha) 세대 유아의 특징에 대한 조사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7호, 183-199.]
- Lee, W. S., Joe, J. H., & Choi, J. S. (2022). *Children and media literac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오원섭·조재희·최지선 (2022). <어린이와 미디어 리터러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enhart, A., Rainie, L., & Lewis, O. (2001) *Teenage life online: The rise of the instant-message generation and the internet's impact on friendships and family relationships*. Washington, DC: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in, C. A., & Atkin, D. J. (1989). Parental mediation and rulemaking for adolescent use of television and VC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3(1), 53-67.
- Litman, J. (2005). Curiosity and the pleasures of learning: Wanting and liking new information. *Cognition and Emotion*, 19(6), 793-814.
- Litman, J. A. (2008). Interest and deprivation factors of epistemic curios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85-1595.
- Litman, J. A., & Jimerson, T. L. (2004). The measurement of curiosity as a feeling of dep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2), 147-157.
- Litman, J. A., & Spielberger, C. D. (2003). Measuring epistemic curiosity and its diversive and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0(1), 75-86.
- Livingstone, S., & Helsper, E. J.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Loewenstein, G. (1994). The psychology of curiosity: A review and reinterpre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1), 75-98.
- Mesch, G. (2009).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3), 601-618.
- Minuchin, P. (1971). Correlates of curiosity and exploratory behavior in preschool disadvant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3), 939-950.
- Mittman, L. R., & Terrell, G. (1964). An experimental study of curiosity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5(3), 851-855.
- Mo, A. (2017). Exploring parents' concerns about infants' smartphone use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8(4), 691-698. [모아라 (2017).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4호, 691-698.]
- Nathanson, A. I. (2001).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201-220.
- Nathanson, A. I., & Yang, M. S. (2003). The effects of mediation content and form on children's responses to violent televi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1), 111-134.
- Neuman, S. B. (1995). *Literacy in the television age: The myth of the TV effect* (2nd ed.). Norwood, NJ: Ablex.
-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3435.
- Ofcom (2017).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2017. Retrieved 4/4/24 from <https://www.ofcom.org.uk>
- Oh, D., & Lee, J. (2014). A study on smart media usage, addiction, and effects among adolescents. *Media, Gender & Culture*, 29(3), 125-158. [오대영·이정기 (2014). 청소년들의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중독, 효과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9권 3호, 125-158.]
- Oh, J. H., & Park, Y. W. (2019). Analysis of the usage status and parental perception of smart media among young children. *Childcare Policy Research*, 13(3), 3-26. [오주현·박용완 (2019).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 13권 3호, 3-26.]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8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cognitive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166-179.
- Park, H. S., & Kim, H. M. (2016). The influence of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on aggression: Focusing

-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ntent Studies*, 16(3), 498-512. [박혜선·김형모 (2016).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3호, 498-512.]
- Park, S., & Moon, H. (2012). Trends in child internet game addiction as induced by family strengths and daily stress level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1), 143-162. [박소영·문혁준 (2012). 아동의 가족건강성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인간발달학회>, 19권 1호, 143-162.]
- Park, S. H. (2007). *The measurement of sport fan curio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 Park, S. I., & Kim, Y. K. (2006).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 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 – 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4(1), 93-115. [박성익·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권 1호, 93-115.]
- Piotrowski, J. T., Litman, J. A., & Valkenburg, P. (2014). Measuring epistemic curiosity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5), 542-553.
- Radesky, J. S., Schumacher, J., & Zuckerman, B. (2015). Mobile and interactive media use by young children: The good, the bad, and the unknown. *Pediatrics*, 135(1), 1-3.
- Ramírez, S., Gana, S., Garcés, S., Zúñiga, T., Araya, R., & Gaete, J. (2021). Use of technology and its associa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iatry*, 12, 764054.
- Rhee, J., Kim, E., Kang, J., & Park, S. (2007). A study on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media education using motive effect in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37(1), 43-72. [이정춘·김은규·강진숙·박상호 (2007).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7권 1호, 43-72.]
- Richards, J. B., Litman, J., & Roberts, D. H. (2013).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measurement instruments of epistemic curiosity in third-year medical students. *Medical Science Educator*, 23, 355-363.
- Rideout, V. J., Vandewater, E. A., & Wartella, E. A. (2003). *Zero to six: Electronic media in the lives of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Menlo Park, CA: Kaiser Family Foundation.
- Rosin, H. (2013, April 15). *The touch screen generation*. The Atlantic. Retrieved 3/4/24 from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3/04/the-touch-screen-generation/309250/>

- Spielberger, C. D., & Starr, L. M. (1994). Curiosity and exploratory behavior. In H. F. O'Neil, Jr. & M. Drillings (Eds.), *Motivation: Theory and research* (pp. 221-24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 Peters, M., Fitch, M., Huston, A. C., Wright, J. C., & Eakins, D. J. (1991). Television and families: What do young children watch with their parents? *Child Development*, 62(6), 1409-1423.
- Sung, Y., Kim, H., Lee, H., Park, J., Kim, H., & Kim, B. (2008).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of epistemic curiosity: A comparative study of two gratific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9(2), 305-331. [성영신·김학진·이현진·박정선·김희진·김보경 (2008). 지적 호기심의 심리적 메커니즘: 호기심 충족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9권 2호, 305-331.]
- Takeuchi, L. M. (2011). *Families matter: Designing media for a digital age*. New York, NY: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 Thierer, A. D. (2008). *Congress, content regulation, and child protection: The expanding legislative agenda*. Washington, DC: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 Vaala, S. E., & Hornik, R. C. (2014). Predicting US infants' and toddlers' TV/video viewing rates: Mothers' cognitions and structural life circumstance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8(2), 163-182.
- Vaala, S. E., Bleakley, A., & Jordan, A. B. (2013). The media environments and television-viewing diets of infants and toddler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parents. *Zero to Three*, 33(4), 18-24.
- Valkenburg, P. M., Krck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 Van den Bulck, J., & Van den Bergh, B. (2000).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guidance on children's media us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 displac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3), 329-348.
- Van der Voort, T. H. A., Nikken, P., & Van Lil, J. E. (199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6(1), 61-74.
- Vandewater, E. A., & Lee, S. J. (2009). Measuring children's media use in the digital age: Issues and challeng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8), 1152-1176.
- Vega, V., & Robb, M. B. (2019). *The common sense census: inside the 21st-century classroom*. San

Francisco, CA: Common Sense Media.

- Vittrup, B., Snider, S., Rose, K. K., & Rippey, J. (2016). Parental perceptions of the role of media and technology in their young children's liv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4*(1), 43-54.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ren, R. (2001). In words and deeds: Parental involvement and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4), 211-231.
- Warren, R. (2005).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in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5*(4), 847-863.
- Warren, R., Gerke, P., & Kelly, M.A. (2002). Is there enough time on the clock?: Parental involvement and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1), 87-111.
- Wartella, E., & Jennings, N. (2001). New members of the family: The digital revolution in the hom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1), 59-69.
- Wartella, E., Rideout, V., Lauricella, A. R., & Connell, S. (2013). *Parenting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Evanston, IL: Center on Media and Human Development.
- Woodard, E. H., & Gridina, N. (2000). *Media in the home*. Philadelphia, PA: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Zhen, R., Li, L., Ding, Y., Hong, W., & Liu, R. D. (2020). How does mobile phone dependency impair academic engagement among Chinese left-behind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05169.

최초 투고일 2024년 04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5월 29일